

우리의 죄, 하나님의 약속

성경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 ~ 14절>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하니 [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뻗뻗한 백성이로다 [10]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간지 오래 되니까,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을 모아 우상을 만들었고, 이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하니 [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의 신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든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지금 눈 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였고, 신명기에는 (신 5: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낸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쑥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0일도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정도로 의지가 없었고, 신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였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약속을 지킬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의 능력과 의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이루신다고 해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야곱)에게 하였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의지합니다.

<기도제목>

1.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소서.